

글로벌 리포트

담수생물 및 생물 관련 분야의 글로벌 동향 및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 ABS 해외 동향Ⅳ

## 페루의 사례로 알아보는 생물해적 활동

이번호에서는 생물해적(Bio-piracy)\* 활동에 대해서 페루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 자연의학회사(natural medicine company)에 로렌 밀러(Loren Miler)는 환각유발성 식물인 아야와스카(ayahuasca) 샘플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밀러는 에콰도르의 원주민 부족이 준 샘플을 가지고 있었으며 밀러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새로운 식물 품종으로 특허를 얻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밀러는 그 당시 기본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미국의 특허·상표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서는 그의 신청서는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환각유발성 식물인 아야와스카(ayahuasca)

이에 원주민들은 매우 실망하였고 밀러는 수천년 동안 생산 및 판매 독점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밀러는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생물해적(bio-piracy)의 심각한 예시 중 하나입니다. 원래 그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 없이 자원에 대한 법적 독점권을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아야와스카의 본고장인 페루는 현재 반생물해적 활동의 선도국으로 유명합니다. 페루는 국제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생물해적 감시를 위해 경쟁 지적재산권 보호 연구소(Andres Valladolid of Peru's Institute of Competi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INDECOPI)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기관으로 설립됐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회원국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전자 원 및 전통지식 보호의 선도 국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페루 내 반생물해적 위원회는 생물자원 이용을 일반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생물자원을 제공하는 공동체 또는 국가에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기 위해 생물해적 사례들을 추적하고 페루 생물



마카(Lepidium peruvianum Chacon)

자원 및 전통지식을 이용한 특허 출원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내 퀴노아, 마카, 퍼플 메이즈 등을 포함하여 11,690건의 페루 고유 유전자원 관련 특허출원이 있었으며, 페루의 반생물해적 위원회는 불면증 치료제, 테스토스테론 치료 용도로 등록된 마카와 관련된 여섯 개의 특허를 무효화했고 페루의 정글이 원산인 아콘, 사카잉키 등 슈퍼푸드에 대해 일본, 한국, 프랑스, 미국의 특허 주장을 무효화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생물해적 대응 역시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마카가 불법 반출되어 중국내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이는 이후 마카가 중국내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이 되어 특허 출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는 마카의 재배면적 증대, 과잉생산 등으로 인해 마카판매에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페루산 마카 붐, 중국의 재배로 하향 평준화하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feb/09/peru-maca-indigenous-root-china-biopiracy> 참조).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었던 아킴 슈타이너는 "해당 지역에서 동식물 자원을 잘 보존해왔기 때문에 인간에게 유용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해당 지역주민들 또는 국민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외 생물 자원이 필요하기도 하나, 생물자원 확보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어설명

생물해적(Bio-piracy)

토착민 또는 지역공동체에 적절한 보상이나 승인 없이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을 독점하는 행위로 해적처럼 악랄해 간다고 하여 생물해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카(Lepidium peruvianum Chacon)

해발 4,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뿌리식물로 페루의 인삼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르기린, 철분, 아연, 칼슘등의 함유율이 매우 높아 건강관리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식물입니다. 현재 특허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카는 분말형태로만 수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글 다양성보전연구부 배미정

출처: Latin Correspondent (<http://latin-correspondent.com/2016/03/the-successes-and-drawbacks-of-perus-fight-against-biopiracy/>), ABS 산업지원센터(<http://www.abs.kr>)